



학정 이돈흥 제자들로 이루어진 학정연우서회 제48회 전시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25일까지 진행중이다.



故 이돈흥 작 '화광동진' 김성덕 작 '南冥 曹植 詩 2 首'

학정 이돈흥 서예 정신 오롯이... 가르침을 새기다

담양 출신의 학정(鶴亭) 이돈흥(1947~2020)은 원교 이광사, 추사 김정희, 송곡 안규동으로 이어지는 호남 서예계를 대표하는 서예가였다. 또한 21세기 한국 서예 10대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서예계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다.

그는 선인들의 필법을 토대로 독창적인 서체 '학정체'(鶴亭體)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처음 서실을 마련했을 당시 벽면에 '眞能古不誦碑'(귀능고불고시)라고 써서 붙였다 한다. '귀한 것은 옛사람을 배우고 이으며 기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서예 정신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학정연우서회는 학정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임이다. 지난 1975년 호남동성당 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얼마 후 학정서예연구원 연우회가 발족했으며 1977년 첫 회원전을 개최한 이후 매년 전시회를 열어왔다.

학정의 제자들의 모임인 학정연우서회가 제48회 전시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고 있다. 오

학정 제자들 모임 '학정연우서회' 70여 명 작품 80여 점 전시 25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학정 작품 '화광동진'도 첫 공개

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70여 명의 작품 80여 점이 출품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지금까지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학정의 유고 작품도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덕 학정연우서회장은 "학정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서예(臨書)와 창신(創新)에만 뜻을 두셨으며 법고(法古)를 벗어나 자유자재의 경지를 이룬 스승"이라며 "전시를 계기로 서예를 사랑하

고 제자를 아꼈던 선생님의 마음을 오롯이 가슴에 새겨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첫 공개되는 학정의 작품은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글씨다. '화광(和光)은 빛을 늦추는 일이고 동진(同塵)은 속세의 티끌에 같이 한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그 지혜를 부드럽게 해서 속세의 티끌에 동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최고이며 자신의 주의와 주장이 최고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세태에서 '화광동진'의 의미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임춘식 이사장의 '애'(愛)는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풀어 쓴 것이다. 영혼이 잘 돼야 행동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문구는 비단 기독교인에게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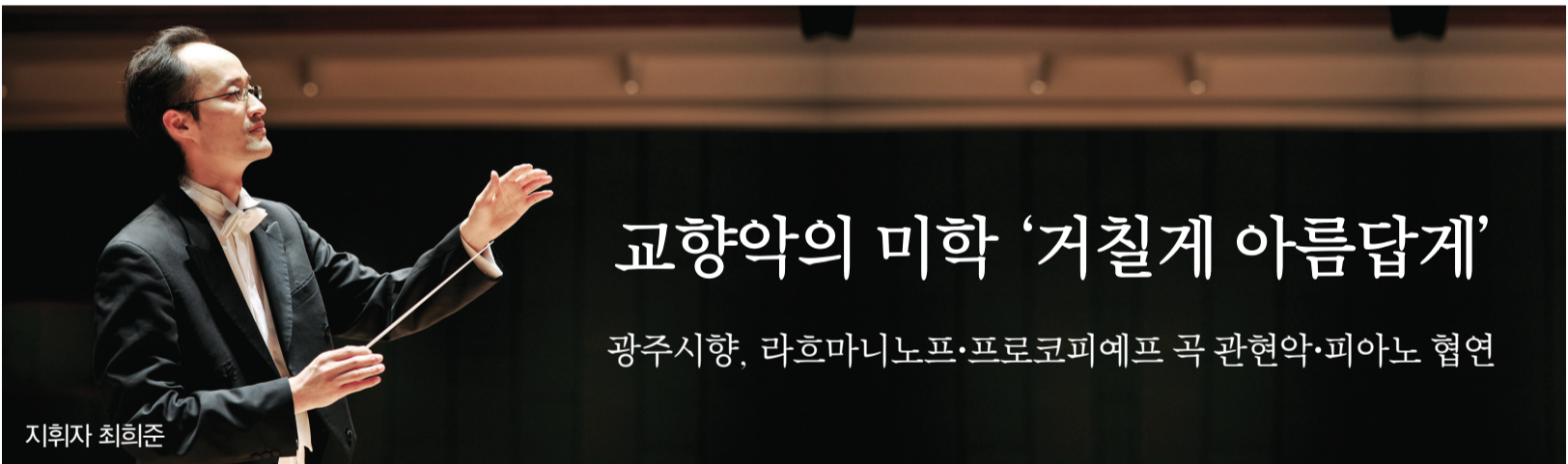
강영화 서예가의 재근담의 한대목도 누구나 한번

쯤 새겨봤음직한 내용이다. "충애와 이익을 얻는데는 남보다 앞서지 말고 덕을 닦는 일은 남보다 뒤떨어지지 말라. 남으로부터 받는 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수양하여 실천하는 일은 분수 이하로 줄이지 말라"는 글귀의 의미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처세의 일면을 보여준다.

안중근 의사의 옥중 시를 쓴 글씨도 있다. 학정의 부인 홍순자 서예가의 '安重根 義士 獄中 詩'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호연지기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龍虎之雄勢(용호지용세-용과 호랑이의 웅장한 형세가) 豈作珊瑚之態(기작 인모지태-어찌 지렁이와 고양이 따위의 자태를 일삼으랴)'는 안중근 의사의 기개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김성덕 서예가의 '南冥 曹植 詩 2 首', 정병갑 서예가의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히는 의미의 '崇德興業(승덕흥업)' 등도 되새겨볼만한 문구다.

/최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교향악의 미학 '거칠게 아름답게'

광주시향,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 곡 관현악·피아노 협연

지휘자 최희준

러시아 낭만주의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의 곡을 관현악과 피아노 협연으로 감상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거칠게 아름답게'를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제387회 정기연주회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지난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 발레음악과 소나타 등으로 알려진 프로코피예프의 곡들을 만나는 자리다.

연주회 포문을 여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피아노의 타악기 음색과 관현악 소리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1악장의 클라리넷 솔로와 서정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적인 멜로디, 호방한 알레그로 주제가 돋보이며 다섯 개의 변주(2악장), 3악장의 피아노 초절 테크닉 등을 볼 수 있다.

러시아적 감성 측면에서 '차이콥스키의 뒤를 잇는 교향곡'이라는 평가를 받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도 레퍼토리에 있다. 민중 춤곡을 담은 리듬과 감성에 호소하는 선율이 깃들여 있으며, 그의 원대한 음악적 포부를 광활한 스케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절하면서도 강인한 색채, 스케르초 악장의 변화무쌍함이 유장한 선율 위에 펼쳐진다.

협연자 피아니스트 한상일은 한예종 예술사과정,

독일 뉘른베르크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05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위(1위 없음)에 올랐으며 이듬해 미국 미주리 서던 국제피아노콩쿠르(3위), 2011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콩쿠르 파이널리스트 등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 지휘전공 교수 및 제7대 수원시향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으로 재직 중인 최희준이 지휘봉을 잡는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최고연주자 과정을 끝마쳤으며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초(개교 이래)로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R석 3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꿈을 찾아...박기복 감독 '열아홉 섬진강'

26~28일 시사회...곡성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 일환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고인돌' 등을 연출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화감독 박기복이 최근 중·단편영화 '열아홉 섬진강'〈사진〉시사회 개최를 알렸다. 오는 26~28일 곡성에서 열리는 '제23회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초청 시사회).

박 감독은 전남도교육청과 곡성교육지원청 지원을 받아 진행한 '청소년 영화학교 윈스톱 영화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영화를 제작했다.

'열아홉 섬진강'은 섬진강 주변 생태자원과 유패로 의병장, 도깨비마을, 월봉습지, 마천목 장군 등 곡성의 역사·설화를 접목한 극영화다. 곡성 관내 청소년과 정운서(설지윤), 송민진, 구민서, 조수경 배우가 출연, 섬진강의 발원지를 찾아 나서는 청소년들의 여정을 로드무비로 형식으로 그렸다.

작중 줄업을 앞둔 학생들은 전북 진안 데미섬(섬진강 발원지)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이들은 수원을 찾는 일보다 곧 사회에 던져져 마주하게 될 현실과 미래를 더 걱정스러워 한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불안을 극복하고 조



곡식 성장한다는 내용.

박 감독은 "청소년 시절의 꿈을 이룬 어른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작품에서 '강'을 찾아가는 과정은 청소년들이 지독한 현실을 벗어나 진정한 꿈을 꾸는 모습을 은유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형적인 시나리오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의 심리를 모호하게 묘사했으며, 아날로그 필름 감성을 담으려 '필름 북' 이미지를 활용해 색감을 보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출신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박기복은 '낙화산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 등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해 왔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맑은 감성으로 풀어낸 고운 이야기들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 '바퀴 세탁소' 출간...4편 수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소외된 지역이나 시골을 방문해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은 여느 봉사보다 귀하다.

큰 트럭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싣고 시골을 돌며 세탁을 도와주는 일명 '바퀴 세탁소'가 있다. 몸이 편찮은 어르신들은 부피가 큰 이불 빨래를 하기가 어렵다. 세탁소 또한 먼 곳에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영광 출신 이성자(사진) 동화작가의 '바퀴 세탁소'는 제목 그대로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빨아 주는 이야기이다. 시골에 다니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빨래를 해주고 건조를 해준다.

작품집에는 모두 네 편의 동화가 수록돼 있다. 언급한 '우철 씨의 바퀴 세탁소' 외에도 '숲속 웅달샘을 지켜라!', '특별한 선물', '낙타 미모 경연대회'는 마른 빨래처럼 포근하면서도 고운 이야기들이다.

작가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민다는 것의 보람과 의미를 잘 직조된 이야기와 맑은 감성으로 엮어냈다.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봉사다. 그러나 봉사를 하고 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바퀴 세탁소' 이야기는 때를 깨끗이 빨아주는 것을 넘어 '추억'이라는 얼룩을 선사한다.

이 작가는 "상상은 바퀴가 달린 달리기 선수에



요. 마음먹으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어요"라며 "동화를 읽으며 상상의 나라를 활짝 펴 봐요. 상상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를 수 있게 해 주는 마법 같은 친구니까요"라고 말한다.

한편 이 작가는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우리나라 좋은동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너도 알 거야', 동화집 '형이라고 부를 자신 있니?' 등 다수의 창작집을 펴냈다. 현재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와 신일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효선연극상에 지정남 '환생곳'·크리에이티브 VaQi '섬이야기'

'제2회 박효선연극상' 수상작으로 지정남의 '환생곳', 크리에이티브 VaQi '섬이야기' 두 편이 선정됐다.

최근 박효선연극상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우·오수성)와 (사)한국민족극협회는 심사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박효선연극상'은 고(故) 박효선(1954~1998)의 시대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2년 제정, 격년제로 수상하고 있는 상이다. 박효선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도청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이었으며 5월극 '금희의 오월', '청실홍실', '모란꽃' 등을 창작한 극작가이기도 하다.

수상작인 '환생곳'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뒷길곳을 배운 전라도 무당 고만자(지정남 분)가 굿판을 펼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굿소리에 자신 없던 그녀가 기상천외한 '영업'을 하면서 죽은 망자들을 환생시키는 영똥한 오월 1인극이다.

이정성이 연출한 '섬이야기'는 2022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초연했던 작품이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영상, 배우들의 연기와 오브제를 통해 제주 4·3사건과 국가폭력의 비극성을 초점화했다.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소연 연극평론가)은 "심사 과정이 치열했으나 4·3 유족들의 증언을 직접 무대에 올리고 퍼포먼스적으로 재해석한 '섬이야기', 전통적 굿의 전개를 따르면서도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환생곳' 두 작품 모두 의미가 있다"며 "우리 시대의 연극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창작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는 서울, 대구, 일본 등에서 총 26편 작품이 응모됐다. 시상식은 21일(오후 3시) 민들레극장에서 진행했으며 수상작 하이라이트를 무대화했다. 박효선과 더불어, 전대연극단 활동을 함께했던 임철우 작가의 토코 '박효선과 나'도 마련됐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